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현 례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분석

지도 김 선 아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현 례

김현례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년 12월 일

감사의 글

논문 하나를 완성한다는 것은 곧 출산의 과정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설레임으로 시작하여 순간순간 가슴 졸이며 이어온 논문의 전 과정이 정말로 지금 뱃속의 아기와 함께 했던 과정과 비슷하단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던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오려는 순간, 그 동안 이끌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우선, 저의 논문을 지도해 주신 주, 부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선아 교수님, 논문의 시작을 포기하려고 했던 첫 순간부터 흔들리는 저를 꼭 잡아주셨지요. 논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상하고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시고 끝까지 용기 잃지 않게 지지해주신 교수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김선아 교수님과 함께 저에겐 어머니와 같은 김소야자 교수님, 석사 과정에서부터 진심어린 애정으로 보살펴 주셨지요. 박사 과정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때로 제가 느슨해질 때는 엄하게 바로잡아주셨던 교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유일영 교수님, 심사 때마다 세심하고 예리한 지적으로 학문적 자극을 주시고 이끌어주시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대학에서 먼 길을 왕래하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가깝고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셨던 현명선 교수님, 세심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정모 교수님, 통계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베푸신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자주 들르지 못해 자주 뵙지 못하는 데도 마주칠 때마다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간호대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전 기숙사 룸메이트로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안정아 선생님, 정신간호학 전공 후배이면서 학교에 갈 때에는 물론 늘 소소한 일까지 챙겨주고 도와주었던 김민정, 한나래 선생님, 봉사활동으로 만나 지금까지 늘 반갑게 맞아주고 격려해주었던 선혜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논문의 전 과정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함께 공부했던 원우들과 친구들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특히 오랫동안 키워온 우정만큼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은영이와 수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 과정 중 학교 및 담임선생님과의 연계와 자료수집을 도와주신 보건교사 이수진, 여은영, 김선우, 박희순 선생님과 각 학교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학문적 정진과 노력을 통해 보답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효녀 딸이라며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모든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 박사 며느리라며 흐뭇해 하시며 응원해주셨던 시부모님, 늘 관심과 애정으로 힘이 되어주었던 언니들과 동생, 서방님과 아진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주고 두려움 없이 세상의 모든 일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남편과 이 모든 순간을 함께 했던 뱃속의 아가 사랑이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담아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8년 12월

김현례 올림.

차 례

표 차례 ····· iii

그림 차례 ····· iii

국문요약 ····· iv

Ⅰ.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4

C. 용어의 정의 ····· 4

Ⅱ. 문헌 고찰 ····· 7

A. 청소년의 위험행동 ····· 7

B.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 11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 19

Ⅳ. 연구 방법 ····· 21

A. 연구 설계 ····· 21

B. 연구 대상 ····· 21

C. 연구 도구 ····· 22

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 26

E. 자료 분석 방법 ····· 26

Ⅴ. 연구 결과 ····· 27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7

B. 대상자의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 ····· 28

C. 대상자의 위험행동 ····· 32

D. 대상자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 35

E. 대상자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 40

Ⅵ. 논 의 ····· 49

A. 중학생의 위험행동 ····· 49

B.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 52

C. 연구의 의의 ····· 60

Ⅶ. 결론 및 제언 ····· 62

A. 결 론 ····· 62

B. 제 언 ····· 65

참고문헌 ····· 66

부 록 ····· 75

Abstract ····· 81

표 차례

<표 1> 위험행동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 22
<표 2>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 42
<표 3> 가족기능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 52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82
<표 5> 대상자의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 ····· 13
<표 6> 대상자의 위험행동 ····· 33
<표 7> 대상자의 위험행위별 빈도수 ····· 43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 53
<표 9> 가족기능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 73
<표 10> 위험행동과 제 요인 간의 상관관계 ····· 93
<표 11> 일반적 특성이 전체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04
<표 12>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전체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24
<표 13> 일반적 특성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34
<표 14>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54
<표 15> 일반적 특성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64
<표 16>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84

그림 차례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 02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환경적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각 2개교씩 총 4개교 남녀 중학교의 재학생으로 2, 3학년의 학생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7월 16일에서 2008년 9월 9일까지로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거된 총 558부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를 제외한 총 54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서 종속변인인 중학생의 위험행동은 Gullone 등(2001)의 위험행동 도구를 한상철(2004)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검증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개인내적 요인은 Coopersmith(1981)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도구로 측정하였다. 사회환경적 요인 중 가족위험요인은 오경자와 문경주(2006)가 개발한 가족위험요인 항목을 이용하였고 가족기능은 Olsen, Portnet과 Lavee(1985)의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Evaluation Scale-III)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또래 위험행동은 가까운 친구들의 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유해환경요인은 이기숙과 김수연(1999)이 개발한 도구 중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위험행동 정도는 0 ~ 54점의 범위에서 평균 6.04점으로 모험성 위험행동이 반항성, 반사회성 위험행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높게 나타난 위험행위는 '음란동영상 보기', '거짓말로 용돈 받기', '고의로 수업 빼먹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 간의 차이를 보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는 성별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위험행동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위험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3.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총 위험행동에 대하여 가족위험요인,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이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기능(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은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험성 위험행동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든 제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 위험행동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부모와의 동거여부, 사회경제적 수준, 스트레스 대처능력, 가족위험요인,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남녀 학생 간의 차이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이, 여학생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또래 위험행동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남학생은 또래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은 개인적 및 가족적 요인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위험행동과 하부요인에 속하는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각 영향요인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여러 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또래 위험행동이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보다 긍정적인 위험행동 접근 방법이 유용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일반 중학생들의 위험행동이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 및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중학생, 위험 행동, 영향 요인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간발달과정에서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성장 과업에 직면하는 시기이다.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아정체감의 갈등과 위기가 올 수 있고,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위험 및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윤혜미, 박병금, 2005) 위험행동의 취약시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의 특성에 기인하여 다른 연령 집단보다 더욱 충동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더욱 무모하게 성행동을 시도하고 더 반항적으로 행동하기 쉽다(Borum, 2000; 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특히 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위험행동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대개 위험행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때이면서(김준호, 1993) 같은 위험행동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에 비해 일탈과 모험의 의미가 크다.

이러한 청소년 위험행동은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여 그 자체가 청소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일 뿐 아니라,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영향을 미치며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김진화 등, 2002). Hinshaw(1992)는 청소년 시기에 나타난 문제행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 행동 및 물질남용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조하였다. 즉 청소년 시기의 위험행동은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과 이들이 구성하는 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위험 및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많은 임상가 및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도와 범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시작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청소년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청소년 위험행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법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규범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기존연구에서 학교생활부적응, 음주, 흡연, 폭력행동, 성행동, 가출, 자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위험행동은 심리학, 교육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등에서 문제행동, 비행, 요선동행동, 부적응, 일탈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국내외로 문제행동과 별 차이 없이 사용되거나 포함하는 행동목록이나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유영창, 1999; Merrill, Kleber, Scwartz, Liu & Lewis, 1999; Perkins & Jones, 2004). 이 중 위험행동은 다른 개념들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기의 적응적 행동이며 정상적인 발달과정 측면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갖는다(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Arnett, 1998; Gullone et al., 2000; Jessor, 1991). 무모함이나 반사회성의 부정적 측면 뿐 아니라 모험성과 개척성 등의 긍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위험행동의 범주에는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한상철 등, 2003). 그러나 위험행동은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예방적 조치나 지도를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위험행동 요인은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여러 유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연속체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속해 있는 시대 및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김진화 등, 2002).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연령과 시대나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위험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원인과 사회환경적 배경과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이에 청소년 위험행동의 복합적인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외로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나이, 성별, 편부모가정과 같은 일반적 특성(윤혜미, 박병금, 2005; 현명선, 김경희, 김선아, 2004; Hinshaw, 1992), 청소년 위험행동의 예측요인으로서 생물학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감각추구성향(오미경, 박성연, 1998; 한상철, 2004; Arnett, 1990; Horvath & Zukerman, 1993; Zukerman, 1994) 등이 규명되었다. 청소년 위험행동의 개인내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많이 연구되었고(윤혜미, 박병금, 2005; 이우영, 2006; 장연심, 2004; 조아미, 1999).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가족위험요인, 또래요인 등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희수, 양혜원, 2007; 어유경, 2005; Frank & Buehler, 2007). 이와 같이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 위험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몇몇 위험행동목록이나 부정적 측면의 심각한 문제행동 개념을 사용하고 특정 영역의 영향요인을 다루고 있어 위험행동의 개념이나 영향요인들의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상 성장발달 과정상의 일반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임상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주로 문제행동이 두드러진 선별된 특수집단이거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학교 현장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같은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른 편차를 고려해볼 때 위험행동 양상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된 연구 접근이 필요하겠다.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는 학교보건이나 지역 내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임상영역에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대개 비행 또는 문제행동 접근으로서 그 영향요인으로 공격충동, 폭력매체, 우울, 신체상, 성적발달, 가족기능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현실, 2000, 2003; 남경아, 정향인, 현명선, 노춘희, 2006; 현명선, 김경희, 김선아, 2004; 현명선, 남경아, 공성숙, 2001). 이에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관심과 다른 다양한 관련변인에 관한 후속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향후 다각도의 관련변인과 그 관련성을 분석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행동이 시작되고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 시기에 놓여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험행동의 다각도의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의 정상 성장발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및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국내외의 청소년 위험행동과 관련된 이론과 문헌고찰에서 뒷받침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중학생의 위험행동 현상을 통합적으

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임상적 접근을 통해 조절 가능한 구체적인 변인들을 선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포괄적인 조망을 제공하며 위험행동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지도방안이나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특성 및 위험행동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특성과 위험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C. 용어의 정의

1) 청소년 위험행동

청소년 위험행동은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상실)를 내포하지만, 지각된 긍정적인 결과(이득)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균형을 유지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Moore & Gullone, 1996). 본 연구에서는 Gullone 등(2001)의 위험행동도구를 기초로 하여 한상철(2004)이 개발한 18문항을 4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청소년 위험행동 영향요인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을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로 정의된다(Coopersmith, 1967).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1981)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 SEI)를 유윤자(2000)가 4점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트레스 대처란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요구와 동반되는 스트레스 및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김정희와 이장호(1985)는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문제지향적, 정서완화적,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문제지향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직면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초래되는 감정상태를 통제하고 다루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은 스트레스가 소멸된 상황이나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문제를 이겨내려는 노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문제지향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는 적극적인 대처방식,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를 소극적인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주, 2002).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하고 김정희(1987)가 번안한 대처방식 척도를 김수주(2002)가 총 27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가족위험요인**

가족위험요인은 건전한 가족의 상태를 위협함으로써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와 문경주(2006)가 가족위험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자녀구타, 부부간폭력,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부 갈등, 부모의 우울을 포함하는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위험요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이 처하게 되는 상황적 및 발달과정상의 긴장에 대응하여 역할, 규칙, 힘의 구조 등의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Olson, Russel & Sprenkle, 1983). 본 연구에서는 Olsen, Portner와 Lavee(1985)의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III)에 의해 측정된 가족결속력(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가족유연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결속력은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고, 가족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Olson, Russel & Sprenkle, 1983).

Ⅱ. 문헌 고찰

A. 청소년의 위험행동

1. 청소년의 위험행동 실태

우선, 국내 청소년의 위험행동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2)의 보고서에 의하면,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청소년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그 시작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1999년 조사에서 초·중·고등학생의 약물사용경험은 술 60.2%, 담배 35.4%, 수면제 4.2%, 본드 1.5%로 나타났고(문화관광부, 2000), 2002년도에는 일반 중·고등학생의 70.5%, 29.2%가 각각 음주와 흡연 경험이 있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최근 조사에서는 국내 청소년의 연간 음주율은 28.1%, 음주 시작 연령은 평균 14.7세로 과거에 비해 어려졌고 한두 모금 정도의 흡연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3.5세, 월간 흡연율은 4.5%로 나타났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학교생활경험 중 학교에 가기 싫은 경험이 45.5%, 자퇴를 고려해본 경험이 12.0%, 징계경험은 20.3%로 나타났고(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 2000), 청소년 폭력행위에 있어서는 초·중·고등학생의 84.4%가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고 41.3%가 동급생이나 선후배 등에 의한 폭력피해경험이 있었으며 폭력장소로 교내 및 학교주변이 63.2%로 가장 많았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0). 성일탈 경험으로 10대가 포르노 접촉 정도가 가장 높고 최초 접촉 시기도 빨랐으며(김은경, 2000), 성매매에 관한 충동은 중·고등학생의 12.5%, 성매매 유혹을 받은 경우는 14.4%, 실제 경험은 2.0%로 나타났다(황길순 등, 2001).

2.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

청소년 위험행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규범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난폭한 운전, 싸움, 흡연, 약물남용, 무분별한 성

접촉, 자살시도, 섭식장애 등)과 사회 ·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행동(가출, 학교중퇴, 무단결석, 수업 빼먹기 등)을 포함한다(Levitt & Selman, 1996). Igra와 Irwin (1996)은 약물사용, 성행동, 오토바이 폭주, 음주운전 등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여러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Moore와 Gullone(1996)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되지만 지각된 긍정적인 결과, 즉 이득이라고 인식한 것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균형을 유지하는 행동으로 설명하였고, Gullone 등(2000)은 모험추구(스릴추구형) 행동, 반항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무모한(부주의한) 행동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모험추구행동은 일반적으로 사회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위험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낙하산 타기 등과 같은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이 해당된다. 반항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은 대체로 유사한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성질의 행동이라기보다 사회적 또는 법적 결과로 귀착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무모한 행동은 가장 위험한 결과가 예상되는 범주로 과속, 자동차 몰래 타기, 보호되지 않은 섹스 등을 포함한다(한상철 등, 2003).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 및 문제행동 개념들 가운데 Gullone 등(2000)의 개념과 범주가 문제행동에 비해 보다 폭넓고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는 위험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위험행동이 주로 시작되는 일반 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도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형이 소개되었는데, Irwin과 Millstein(1986)의 통합모형, Jessor(1991)의 심리사회적 개념틀, Selman 등(1992)의 발달모형 등이 있고 이 발달모형을 국내에서 일부 수정한 한상철 등(2003)의 발달적 통합모형 등이 있다.

첫 번째, Irwin과 Millstein(1986)의 통합모형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위험행동은 내적 요인, 외적 요인과 유발요인(상황요인)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된다. 이들 각각은 위험행동의 원인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원인요인에 의해 위험행동이 유발될 수 있지만 보호요인에 의해 예방 또는 감소될 수 있다. 내적요인으로서 원인요인에는 유전적 소인, 호르몬 영향, 감각추구성향, 인지적 미성숙, 우울 등이 포함되고 보호요인에는 자기존중

감, 성취에 대한 높은 가치, 종교성, 인지적 성숙 등이 있다. 외적요인에 해당되는 원인요인으로는 동료의 위험행동 수용, 부모 감독 소홀, 가난 등이 있고 보호요인에는 높은 학업성취, 건전한 가족, 부모 지지, 학교활동 참여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유발요인에는 또래의 위험행동 시작, 사회적 압력, 가족 해체, 성행동 시작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Jessor(1991)의 심리사회적 개념틀은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사회환경적, 지각된 환경, 성격, 행동 영역을 포함하고 생물 · 유전적 영역을 추가하여 총 6가지의 요인 영역을 갖는다. 각 영역에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소가 있고 이들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생활습관과 상호작용하며 이것은 다시 건강/생활습관 결과와 상호작용한다. 각 요인 영역에 포함되는 위험요인에는 가난, 부정적 모델링,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있고 보호요인으로는 가족과의 친근감, 긍정적 모델링, 성취에 대한 가치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생활습관은 문제행동, 건강 관련 행동, 학교 행동 영역을 갖고 음주운전, 흡연, 결석 등의 행동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습관 결과로서 건강, 사회적 역할, 성장 발달, 성인기에의 준비 영역으로 분류되고 학교 실패, 우울 및 자살, 부적절한 자아개념 등이 포함된다. Jessor(1991)는 이 모델에서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위험 및 보호요소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로 Selman 등(1992)의 발달모형은 10-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달적 관점에서 개발된 위험행동 모형이다. 이들은 전 청소년기 및 초기 청소년기가 위험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시기 동안의 안전과 성공적인 적응이 청소년기 전체 뿐 아니라 성인기 발달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모형은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소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학적 요소(기질, 신경생리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또래 및 가족 문화)는 위험행동의 선행조건으로 심리사회적 요소(지식, 관리기술, 개인적 신념)가 이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상철 등(2003)은 Selman 등(1992)의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위험행동에 대한 발달적 통합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형은 외형상 큰 차이는 없으나 기존 모형의 심리사회적 구성요소를 보호적 요인으로 전환시키고 각 변인 속의 일부 요인들을 보

다 보편성이 높은 요인으로 변경하였다. 보호적 요인은 위험요인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를 완충해주는 역할과 동시에 위험행동으로부터 잠정적인 부정적 결과를 감소 또는 차단시킨다.

이와 같이 위에서 제시한 위험행동 모형들은 대체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요인들과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보임으로써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모형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관련개념들이 방대하고 실제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임상에의 적용과 경험적 검증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B.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 위험행동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크게 일반적 특성, 개인내적 특성,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위험행동의 여러 영향요인들을 이 분류에 맞추어 선행연구과 문헌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인용된 연구나 문헌들에는 위험행동 연구뿐 아니라 동일한 행동영역을 포함하는 문제행동에 관한 문헌들과 연구 대상으로 중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대다수의 위험행동 관련 문헌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일반적 특성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는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편부모 가정, 학업성취도 등이 있다. 고학년일수록,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위험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소재희, 2000; 소재희 등, 2001) 현명선, 김경희와 김선아(2004)의 연구에서는 성별, 가족상태, 경제상태, 학업성적에 따라 문제행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유형, 사회계층에 따라 문제행동의 차이가 있었고(윤혜미, 박병금, 2005), 낮은 학업성취가 문제행동의 발생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며(Hinshaw, 1992), 나이가 많고 남자 청소년이 위험행동과 더욱 관련되어 있었다(Gullone & Moore, 2000). 위험행동 개입 빈도와 유형에 차이가 있어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다양한 위험행동에 더 빈번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수주, 2002; 오미경, 박성연, 1998; 이경님, 하연미, 2004; Mears, Ploeger & Warr, 1998),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서 남녀 차이가 있었다(이지민, 2005; Small, Silverberg & Kern, 1993).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 발생 경로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도 보고되었는데, 음주의 또래 영향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훈육의 중재 역할이 여학생에게는 긍정적이었으나 남학생에게는 오히려 또

래 영향을 강화시켰으며(Marshall & Chassin, 2000) 청소년의 위험 성행동에 미치는 부모행동(의사소통, 지지, 통제)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었다(Rodgers, 1999). 감각추구성향과 매개요인으로서의 사회화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여자 청소년은 감각추구성향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며(오미경, 박성연, 1998) 오경자와 문경주(2006)의 연구에서는 빈곤에서 가족위험요인, 부모자녀 관계로 이어지는 영향요인이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의 형태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 위험행동의 영향요인 및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개인내적 특성

청소년 위험행동의 개인내적 특성은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및 기능 등이 포함된다. 먼저 생물학적 원인은 유전적 소인, 호르몬, 불균형적인 사춘기 시작 시기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쌍생아 입양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쌍생아는 알콩중독이 아닌 부모에게 양육되더라도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Cloninger, 1987), 남자 청소년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준의 증가와 모노아민 산화억제제가 청소년의 충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이었으며(Arnett, 1992), 조숙한 여자 청소년은 어린 연령에 성생활을 개시할 가능성이 많고 피임도 더 적게 하며 성 파트너도 증가하였다(Irwin & Millstein, 1986). 청소년 위험행동의 개인내적 요인 중 심리적 원인에는 발달특성에 따른 인지적 미성숙이나 정서적 불균형,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 충동성,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이 있다. 감각추구성향은 신체적, 사회적, 법적, 재정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하며 복잡하고 강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로 정의된다(Zukerman, 1994). 이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흡연, 음주, 위험 운전, 도박, 성행동, 범죄적 위험행동 등과 같은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국내외로 연구되어 왔다(오미경, 박성연, 1998; 한상철, 2004; Arnett, 1990; Horvath & Zukerman, 1993). 충동성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특성, 또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심사숙고를 덜 하는 경향

성으로서 청소년의 일상행동의 특징을 결정하는 주요한 특질의 하나이고 사회환경적 변인의 매개변인으로서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쳤다(윤혜미, 남영옥, 2007).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이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다소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였다.

1) 자아존중감

청소년 위험행동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국내 · 외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외에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등의 변인으로 다루어졌고, 대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위험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위험행동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Jessor(1991)의 이론에서 성격 영역의 위험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포함되어 있고, 위험행동의 영향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위험 및 문제행동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혜미, 박병금, 2005; 이경님, 하연미, 2004; 이우영, 2006). Irwin과 Millstein(1986)은 내적 요인 중 보호요인으로 자기존중감을 포함시켰고, 학교부적응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장연심, 2004), 위험행동 및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이지민, Bell, 2004; 조아미, 1999),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위험행동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한상철, 2006), 자아개념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련성(심응철, 1992), 중학생의 문제행동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서의 자기 통제력(남현미, 옥선화, 2001), 신체상 또는 신체만족도와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현명선, 남경아, 공성숙, 2001; 현명선, 김경희, 김선아, 2004) 등의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자아관련변인과 위험행동 간의 의미 있는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과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이 없거나 보호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어유경, 2005; Benda, 2001; Dryfoos, 1991; Sherina et al., 2008). Veselska 등(200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에 한해서만 흡연을 포함하는 청소년 위험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연관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위험행동의 관련성은 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으나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2)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김영아, 2001; 김수주, 2002; 윤혜미, 남영옥, 2007), 한상철 등(2003)의 발달적 통합 모델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제안하였다. 대처 전략이란 개인이 스트레스의 효과를 묵인하고 회피하며 최소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Lazarus & Folkman, 1984) 위험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Lee와 Bell(2003)의 연구에서는 대처능력과 위험행동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한상철(2003)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가 위험행동을 중재하는 보상요인이면서 소극적 대처는 위험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김수주(2002)은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이 위험행동에 각각 부적,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대처능력이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보고되었다(어유경, 2005; 이지민, Bell, 2004; 한상철, 2004). 이와 같이 대처능력과 위험행동에 관한 관련성은 아직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위험행동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처리 및 해소하는 방식으로서 표출될 수 있으며 임상적 효용성이 높은 변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계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3. 사회환경적 특성

청소년 위험행동의 영향요인으로서 사회환경적 특성에는 가족 요인, 또래 요인, 환경 요인이 포함된다.

1) 가족 요인

(1) 가족위험요인

위험행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가족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일차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험행동으로 인한 영향도 가장

크게 받는 특징이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가정은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요인 중의 하나로 위험행동과 관련되는 가족의 물리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을 고려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편부모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등의 가족의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환경 뿐 아니라(소재희, 2000; 오미경, 1997; 윤혜미, 박병금, 2005; 현명선, 김경희, 김선아, 2004) 부모의 의사소통, 감독, 불화 정도를 포함하는 가족의 심리사회적 환경(남현미, 옥선화, 2001), 가정폭력,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부 갈등, 부모 우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가족위험요인(어유경, 2005)과 부모의 폭력(임미희, 2005)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자, 김은이, 도례미와 어유경(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우울, 문제성 음주, 가정 폭력 등 가족 내 열악한 환경이 빈곤 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박현선과 이상균(2001)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대처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부적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높았다. 가족위험요인이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경자와 문경주(2006)는 여유경(2005)이 제시한 가족요인에 자녀 구타를 포함하는 가족위험요인이 빈곤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요인으로서 청소년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Frank와 Buehler(2007)의 가족과정모델 검증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 부모의 우울이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자녀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장휘숙(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갈등 요인이 정체감 발달 수준을 매개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정 폭력이나 갈등 등의 포괄적인 가족위험요인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족요인이다.

(2) 가족 기능

가족 내 의사소통, 양육태도, 친밀감, 지지, 감시 및 통제 등을 포함하는 가족기능은 위험행동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서 많은 이론과 연구들에서 지지되어 왔다. Irwin과 Millstein(1986)의 통합모형에서는 외적 요인 중 보호요인으로 건전한 가족, 부모 지지, 권위적 양육을 제시하였고, Jessor(1991)의 심리사회적 개념틀에서는

친밀한 가족, 한상철 등(2003)의 발달적 통합모형에서는 부모의 감시 및 통제를 위험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제시하였다. Menaghan, Kowaleski-Jones와 Mottet(199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및 감독, 온정적 태도가 위험행동을 감소 또는 차단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과 부모의 양육 특성 중 정서적 유대와 감독이 청소년 위험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우영, 2006; 김용석, 박명숙, 2000)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태도가 위험행동의 보호요인으로 규명되었으며(한상철, 2004) 부모의 지지나 통제, 가족의 응집성, 유연성, 신뢰,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나 영향력이 나타났다(김희수, 양혜원, 2007; 김희화, 2003; 남현미, 옥선화, 2001; 윤혜미, 박병금, 2005; 이현아, 2000; 정윤주, Darling, 2003). 청소년 흡연과 가족기능의 관련성을 조사한 이휘곤, 황환식, 박훈기와 이정권(2005)의 연구에서는 학대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와 가족기능이 낮은 집단에서 흡연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기능이 다른 변인들의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는 경로를 제시한 연구들로는 오경자와 문경주(2006)의 연구에서 빈곤이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를 매개하여 청소년의 우울과 외향형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제시하였고 Whitaker와 Miller(2000)는 위험 성행동의 또래 영향에 대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으며 Marshall과 Chassin(2000)은 음주의 또래 영향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훈육의 중재 역할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 간의 관계나 유대감,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방식 등을 포함하는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이해하는 데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2) 또래 요인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있어 가족 요인만큼 중요한 환경적 영향 요인은 또래 요인이다. 또래 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또래 위험행동이나 노출 정도, 또래 모델링, 또래 동조성, 또래 압력, 또래 관계 등의 다양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고, 이러한 각각의 변인들은 단순한 환경적 특성으로서 또래의 위험행동 특성이거나 또래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특성 및 상호작용으로서의 개념을 포함한다. 교우관계에서의 집단동조압력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또래문화는 위험행동을 촉진시키고(한

상철, 1998)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또래의 위험행동이 규명되었으며(이지민, Bell, 2004) 부정적인 또래관계, 또래 지향성, 또래 동조성, 부정적 또래행동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김희수, 양혜원, 2007; 남현미, 옥선화, 2001; 윤혜미, 남영옥, 2007; 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Simon, Johnson, Beaman, Conger & Whitbek, 1996). 인습적 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친구(Jessor, Van Den Bos, Vanderryn, Costa & Turbin, 1995)나 동료의 위험행동 거부(Irwin & Millstein, 1986)는 위험행동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Jessor(1991)의 심리사회적 기틀에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의 모델링을 청소년 위험행동의 위험요인으로 보았고, 한상철(2004)의 연구에서 위험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서 또래 압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정윤주와 Darling(2003)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위험행동 정도가 심할수록 음주와 타인 소유물 파손행동을 포함하는 위험행동이 심하고, 친구의 위험행동과 청소년의 위험행동 간의 정적 관계는 청소년이 부모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약할수록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또래와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또래의 위험행동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모방과 동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대한 개인 및 상호작용 특성이 아닌 대상자에게 노출된 또래 위험행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또래 요인은 위험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어 왔다.

3) 환경 요인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신적 · 정서적 성장에 비교육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유해시설이나 유해매체와 유해물품을 포함하며 그것의 유해성으로 선정성, 폭력성, 소비지향성, 이기적인 쾌락주의 등을 들 수 있다(이기숙, 김수연, 1999). 유해시설은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숙박업소 등을 말하고 유해매체에는 성인 잡지, 음란 동영상, 인터넷 유해 사이트 등이 해당되며 유해물품으로는 술, 담배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유해환경 이용률이 음주, 흡연, 성경험의 정도와 연관되었고(이호진, 이명선, 2001) 유해환경에 접촉할수록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대물비행과 청소년이라는

지위를 벗어난 성인지향적 행위인 지위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이기숙, 김수연, 1999). 이명선(2001)의 연구에서는 음주, 흡연, 성경험, 지나친 낭비 경험, 반항 및 거짓말 경험, 불량한 옷차림과 화장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환경 요인은 현대 청소년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50%가 주 5일 이상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그것이 청소년들의 주요활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김형준, 이상준, 우정익, 조항석, 권혁중, 2002). 인터넷통신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소중한 소통의 공간(이순철, 2004)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와 놀이, 정보 습득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음란물과 같은 유해 정보와 컨텐츠를 취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이고 수면과 학업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김병준, 김윤희, 2004). 그들은 스스로 그것으로 인한 장점 뿐 아니라 단점을 동시에 경험하며 컴퓨터를 사용한 게임, 이메일이나 채팅 등은 청소년들의 의사소통과 행동의 중요한 매개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곽금주, 2003; 조성연, 방은령, 2002). 유해환경이 청소년 위험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그것이 위험행동의 장소, 의사소통, 호기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위험행동을 촉진할 수 있고 현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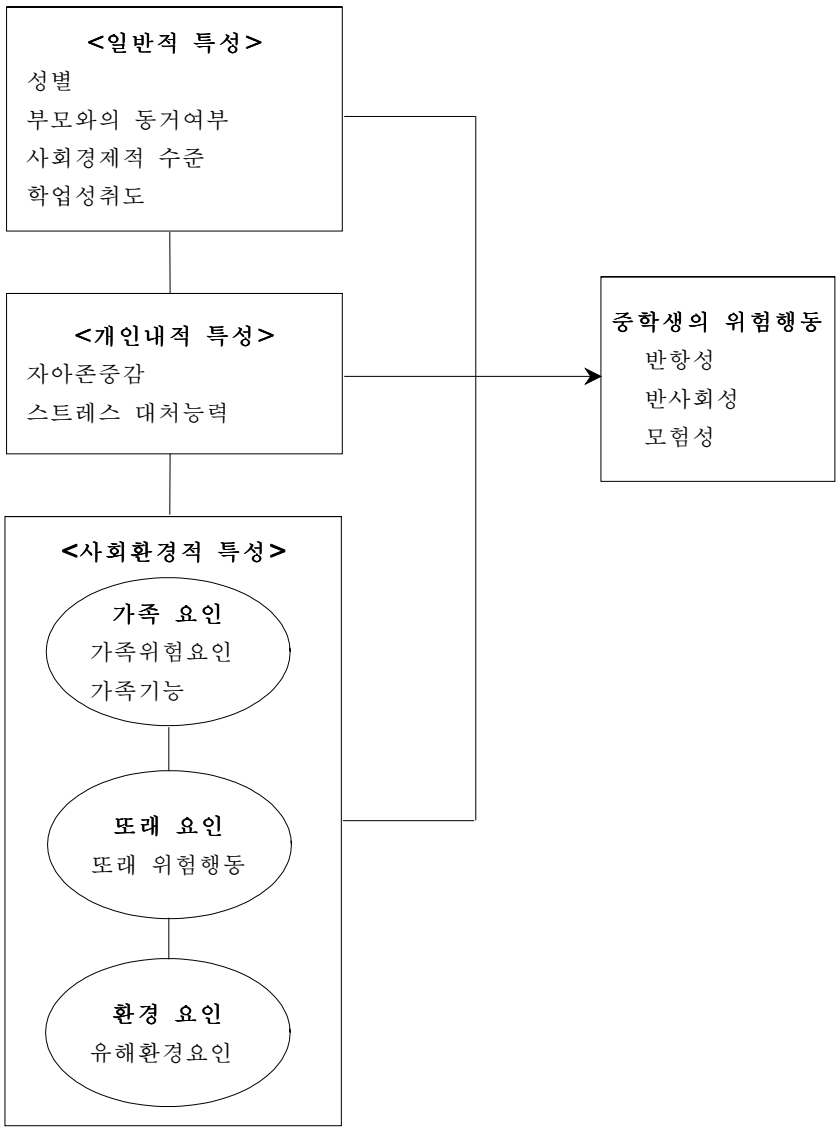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이론적 모형(한상철 등, 2003; Irwin & Millstein, 1986; Jessor, 1991; Selman et al., 1992)에 기초하고, 청소년 위험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포괄적인 문헌고찰을 통하여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서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일반적,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나뉘어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포함하고 개인내적 특성은 심리적 요소 및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 대상자를 둘러싼 사회환경적 특성은 가족, 또래, 환경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일반적,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은 상호연관성이 있는 유기적 관계로 직·간접적인 효과와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학생의 위험위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험행동 영향요인으로 기존 이론적 모형과 선행연구에서 다룬 생물학적 요인(유전적 소인, 신경·생리적 요소, 기질, 성향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생물학적 요인이 갖는 선천적이고 결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중재를 통해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변인 및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 여부,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성취도가 포함되고 개인내적 특성에는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포함된다. 사회환경적 특성은 가족, 또래, 환경 요인을 포함하는데, 가족 요인에는 가족위험요인과 가족기능, 또래 요인에는 또래 위험행동, 환경 요인에는 유해환경요인이 포함된다. 중학생의 위험행동은 Gullone 등(2000)의 개념과 범주에 근거하여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으로 구성된다.

중학생의 위험행동 빈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 중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변인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Ⅳ.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여러 이론적 모형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중학생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의 중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큰 편차가 없고 성별 특성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남녀 중학교를 편의표출하였다. 위험행동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성별, 학교형태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서울지역 남녀 중학교 2, 3학년과 경기지역 남녀 중학교 2, 3학년 중 각 2반씩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즉, 서울과 경기 지역 내 각 2개교씩 총 4학교와 학교별로 4반으로 총 5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국문해석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 하였고,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C.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설문지의 내용은 중학생의 위험행동(18문항) 측정도구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25문항), 스트레스 대처능력(27문항), 가족위험요인(5문항), 가족기능(20문항), 또래 위험행동(1문항 18항목), 유해환경요인(1문항 19항목)에 대한 측정도구로 구성하였고, 그 외 간략한 일반적 특성 4문항을 포함하여 총 101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자료수집 전 남녀 중학생 각각 10 ~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또래 위험행동 및 유해환경요인 항목을 수정 · 보완하였다.

1. 청소년 위험행동

청소년 위험행동은 한상철(2004)이 Gullone 등(2001)의 위험행동도구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여 국내에서 검증한 도구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부요인으로서 위험행동유형은 반항성(7문항), 반사회성(6문항), 모험성(5문항) 위험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8문항으로 빈도의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해 4점 척도(0=없음, 1=1회, 2=2~4회, 2=그 이상)로 재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및 하부요인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1>과 같다.

<표 1> 위험행동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구 분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반항성 위험행동	7	1,2,3,4,5,6,7	.84
반사회성 위험행동	6	8,9,10,11,12,13	.89
모험성 위험행동	5	14,15,16,17,18	.67
전 체	18		.89

2.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성적, 부모님과의 동거여부를 포함하였다.

3. 개인내적 특성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Coopersmith(1981)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I)를 유윤자(2000)가 4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가끔 그렇다, 4=자주 그렇다)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로는 자기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 ~ 10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이은진(2003)의 연구에서 .86,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측정은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하고 김정희(1987)가 번안한 대처방식 척도를 김수주(2002)가 총 27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문제지향적 대처방식(6문항), 정서완화적 대처방식(8문항),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7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척도로 (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3=매우 그렇다) 총 0 ~ 81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제지향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의 합은 적극적인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의 합은 소극적인 대처를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김수주(2002)의 연구에서 .83,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다.

<표 2>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구 분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문제지향적 대처방식	6	5,9,14,17,21,25	.68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8	2,6,10,11,15,18,22,26	.46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7	3,7,12,16,19,23,27	.64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6	1,4,8,13,20,24	.67
전 체	27		.82

4. 사회환경적 특성

1) 가족위험요인

오경자와 문경주(2006)가 가족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자녀구타, 부부간폭력,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부 갈등, 부모의 우울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점 척도로(0=전혀 아니다, 1=약간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매우 그렇다) 총 0 ~ 15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위험요인이 높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79이었다.

2)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Olse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하고 민혜영(1990)이 번안한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III)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가족결속력(10문항)과 가족적응력(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0문항 5점 척도로 (0=전혀, 1=거의, 2=때때로, 3=자주, 4=항상) 총 0 ~ 8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결속력은 이탈(0~21), 분리(22~27), 연결(28~33), 밀착된(34~40)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이탈, 밀착된 형태보다 분리, 연결된 형태에 있을 때 가족기능이 더 기능적임을 의미한다. 가족적응력은 경직(0~9), 구조화(10~14), 유연(15~19), 혼란한(20~40)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경직, 혼란한 형태보다 구조화, 유연한 상태에 있을 때 가

족기능이 더 기능적임을 의미한다(Olson, Russel & Sprenkle, 1983).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도구 개발 당시 2,412명을 대상으로 가족결속력은 .77, 가족적응력은 .62, 전체 척도에서는 .6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전체 및 하부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가족기능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구 분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가족결속력	10	1,3,5,7,9,11,13,15,17,19	.86
가족적응력	10	2,4,6,8,10,12,14,16,18,20	.79
전 체	20		.90

3) 또래 위험행동

또래의 위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가까운 친구들의 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위험행동 측정도구에 포함된 위험행동목록과 예비조사에서 나온 피드백에 준하여 음주, 키스, 흡연, 오토바이타기, 무단 외박, 불법약물복용, 성병이나 임신, 잦은 싸움, 물건이나 돈 훔치기, 음란비디오, 수업 빼먹기, 컨닝, 잦은 거짓말 등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총 0 ~ 18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의 위험행동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

4) 유해환경요인

이기숙과 김수연(1999)이 기존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도구로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을 수정 · 보완한 척도로 유해시설, 유해물품, 유해매체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피드백 내용을 추가로 고려하여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해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항목의 예: 전자오락실, 당구장, 커피숍이나 카페, 만화가게, 소주방, 비디오방 / 술, 담배 / 성인방송, 성인잡지, 성인만화, 음란동영상, 인터넷음란사이트, 음란PC게임 등) 총 0 ~ 19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해환경 요인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

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7월 16일에서 2008년 9월 9일로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각 2개교씩 총 4개교 남녀 중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보완을 위한 예비조사는 자료수집 1달 전 6월에 직접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서면을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편향되거나 부정직한 응답을 가능한 피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료 수집 시기는 기말시험 후 방학 직전과 같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수거된 총 558부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를 제외한 총 54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은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의 기술통계를 보이고, 일반적 특성 및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세 집단 이상의 다중비교는 Tukey's method를 이용하여 각 그룹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3. 대상자의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4. 대상자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Ⅴ.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전체 응답자 544명 중 서울지역 중학생은 257명(47.2%), 경기지역 중학생은 287명(52.8%)이었고, 학년 구분은 2학년이 276(50.7%), 3학년이 268명(49.3%)으로 비슷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281명(51.7%), 여학생이 263명(48.3%)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고, 연령 분포는 만 12세 ~ 16세로 평균 14.45세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3명(11.8%),'중'인 경우는 가장 많은 426명(80.1%)이 응답하였으며'하'의 경우는 43명(8.1%)이었다. 학업성취도는'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5명(17.7%), '중'은 276명(51.3%)으로 가장 많았으며'하'라고 답한 경우는 167명(31.0%)이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472명(87.7%), 한쪽 부모나 부모 외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는 경우는 66명(12.3%)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 사별, 직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별거 등의 이유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같이 대상자의 특성은 지역, 학년, 성별에 따라 각각 반수에 가깝고,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학업성적은 '중간'정도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1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44)†

변수	구 분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지역	서울	257 (47.2)	
	경기	287 (52.8)	
학년	2학년	276 (50.7)	
	3학년	268 (49.3)	
성별	남	281 (51.7)	
	여	263 (48.3)	
연령	12~14세	275 (51.6)	14.45 ± 0.88
	15~16세	258 (48.4)	
사회경제적 수준	상	63 (11.8)	
	중	426 (80.1)	
	하	43 (8.1)	
학업성취도	상	95 (17.7)	
	중	276 (51.3)	
	하	167 (31.0)	
부모와의 동거 여부	예 (부모 모두)	472 (87.7)	
	아니오 (편부모 등)	66 (12.3)	

†무응답 제외

B. 대상자의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

중학생의 개인내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사회환경적 특성인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의 정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표 5>.

1. 대상자의 개인내적 특성

자아존중감(25문항)은 가능한 점수 범위 25 ~ 100점에서 최하 33점, 최고 95점으로 평균 64.92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능력(27문항)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81점에서 측정된 점수 범위 역시 0 ~ 81점으로 평균 43.20점이었다. 하부요인으로 문제지향적 대처방식(6문항)은 평균 9.49점이었고, 정서완화적 대처방식(8문항)은 평균 12.01점이었으며,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7문항)은 평균 12.53점,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6문항)은 9.20점이었다. 하부요인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대처방식은 소망적 사고로 문항수로 나눈 표준화된 값 역시 가장 높아(1.79점)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이었다. 문제지향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의 합인 적극적 대처는 평균 18.69점이었고, 정서완화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의 합인 소극적 대처는 평균 24.54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사회환경적 특성

가족요인으로서 가족위험요인(5문항)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15점에서 측정된 범위 역시 0 ~ 15점으로 평균 1.08점이었다. 가족위험요인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부모의 갈등이었다(평균점 0.37). 가족기능(20문항)의 총점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80점에서 최하 0점, 최고 78점으로 평균은 37.67점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의 첫 번째 하부요인으로서 가족결속력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40점에서 최하 0점, 최고 40점으로 평균은 21.08점이었다. 가족결속력의 형태는 이탈 상태가 281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 상태는 144명(26.5%), 연결 상태는 82명(15.1%), 밀착 상태는 37명(6.8%)으로 가장 낮았다. 보다 기능적인 가족결속력의 형태인 분리 상태와 연결 상태에 있는 집단은 226명(41.5%)이었으며 보다 역기능적인 이탈 상태와 밀착 상태에 있는 집단은 318명(58.5%)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하부요인인 가족적응력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40점에서 최하 0점, 최고 40점으로 평균은 16.53점이었다. 가족적응력의 형태는 경직 상태가 88명(16.2%)으로 가장

낮았고, 구조화된 상태는 114명(21.0%), 유연한 상태는 153명(28.1%), 혼란 상태는 189명(34.7%)으로 가장 높았다. 보다 기능적인 가족적응력의 형태인 구조화된 상태와 유연한 상태에 있는 집단은 267명(49.1%)이었으며 보다 역기능적인 경직 상태와 혼란 상태에 있는 집단은 277명(50.9%)으로 나타났다. 또래 요인으로서 또래 위험행동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18점에서 측정된 점수 범위 역시 0 ~ 18점으로 평균은 5.33점으로 나타났고, 5가지 이상의 또래 위험행동에 노출된 경우는 268명(49.9%)이었다. 환경 요인으로서 유해환경요인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19점에서 측정된 점수 범위 역시 0 ~ 19점으로 평균은 7.37점으로 나타났다.

<표 5> 대상자의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

(N=544)†

변 수	범 위	평균 ± 표준편차	구 분	실수 (%)
자아존중감	33 - 95	64.92 ± 10.36		
스트레스 대처능력	0 - 81	43.20 ± 9.39		
적극적 대처	0 - 36	18.69 ± 5.06		
문제지향적	0 - 18	9.49 ± 2.96		
사회적지지 추구	0 - 24	12.01 ± 3.13		
소극적 대처	0 - 45	24.54 ± 5.64		
정서완화적	0 - 21	12.53 ± 3.37		
소망적 사고	0 - 18	9.20 ± 3.05		
가족위험요인	0 - 15	1.08 ± 1.98		
가족기능	0 - 78	37.67 ± 14.70		
가족결속력	0 - 40	21.08 ± 8.37	이탈 (0 - 21)	281 (51.6)
			분리 (22 - 27)	144 (26.5)
			연결 (28 - 33)	82 (15.1)
			밀착 (34 - 40)	37 (6.8)
- 기능적 가족결속력			분리+연결 상태	226 (41.5)
- 역기능적 가족결속력			이탈+밀착 상태	318 (58.5)
가족적응력	0 - 40	16.53 ± 7.30	경직 (0 - 9)	88 (16.2)
			구조 (10 - 14)	114 (21.0)
			유연 (15 - 19)	153 (28.1)
			혼란 (20 - 40)	189 (34.7)
- 기능적 가족적응력			구조+유연 상태	267 (49.1)
- 역기능적 가족적응력			경직+혼란 상태	277 (50.9)
또래 위험행동	0 - 18	5.33 ± 4.39		
유해환경요인	0 - 19	7.37 ± 5.03		

†무응답 제외

C. 대상자의 위험행동

1. 대상자의 위험행동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는 <표 6>과 같다.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는 전체와 남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위험행동 총점은 0 ~ 54점의 범위로 평균은 6.04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험성 위험행동이 평균 3.41점으로 반항성, 반사회성 위험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험행동 항목별 평균점을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온 위험행동은 평균 1.17점으로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항목이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학원이나 학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음'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순위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남학생은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항목이, 여학생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항목의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전체 대상자의 위험행동 총점은 범위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모험성 위험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점이 가장 높은 위험행동 항목은 음란동영상을 본 경험으로 위험행동 순위는 남녀 학생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위험행위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대체적으로 모험성 위험행동의 빈도가 높고 반사회성 위험행동의 빈도는 낮았다. 지난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은 전체 168명(30.9%)로 나타났고 남녀 각각 86명(30.6%), 82명(31.2%)이었다. 대표적인 위험행동인 흡연 경험률은 전체 103명(18.9%), 남학생 64명(22.8%), 여학생 39명(14.8%)으로 남학생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음란 동영상을 본 경험은 전체 279명(51.3%), 남학생 197명(70.1%), 여학생 82명(31.2%)으로 남학생의 상당수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 외에 밤늦게까지 이유 없이 배회한 경험(143명, 26.3%), 학원이나 학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경험(215명, 39.5%),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탄 경험(234명, 43.0%)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6> 대상자의 위험행동

(N=544)†

구 분	위험행동 정도	범 위	평균±표준편차
전 체	위험행동 총점	0 - 54	6.04 ± 7.41
	반항성	0 - 21	2.19 ± 3.77
	반사회성	0 - 18	0.36 ± 1.61
	모험성	0 - 15	3.41 ± 3.29
	위험행동 순위		
	음란동영상	0 - 3	1.17 ± 1.30
	거짓말로 용돈받음	0 - 3	0.83 ± 1.10
	고의로 수업빼먹기	0 - 3	0.80 ± 1.12
성별 남	위험행동 총점	0 - 54	6.75 ± 7.74
	반항성	0 - 21	2.44 ± 4.03
	반사회성	0 - 18	0.43 ± 1.94
	모험성	0 - 15	3.87 ± 3.40
	위험행동 순위		
	음란동영상	0 - 3	1.74 ± 1.31
	고의로 수업빼먹기	0 - 3	0.84 ± 1.15
	거짓말로 용돈받음	0 - 3	0.72 ± 1.06
성별 여	위험행동 총점	0 - 54	5.29 ± 6.98
	반항성	0 - 21	2.00 ± 3.65
	반사회성	0 - 18	0.33 ± 1.59
	모험성	0 - 15	2.96 ± 3.19
	위험행동 순위		
	거짓말로 용돈받음	0 - 3	0.94 ± 1.13
	고의로 수업빼먹기	0 - 3	0.75 ± 1.08
	음란동영상	0 - 3	0.56 ± 0.97

†무응답 제외

<표 7> 대상자의 위험행위별 빈도수

(N=544)†

	위험 행동 목록	실 수 (%)		
		전체	남	여
반항성	1. (지난 1년 동안) 음주한 적이 있음.	168 (30.9)	86 (30.6)	82 (31.2)
	2. 이성친구와 키스한 적이 있음.	71 (13.1)	40 (14.2)	31 (11.8)
	3. 흡연한 적이 있음.	103 (18.9)	64 (22.8)	39 (14.8)
	4. 음주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동승한 적이 있음.	68 (12.5)	39 (13.9)	29 (11.0)
	5. 무단 외박을 한 적이 있음.	41 (7.5)	21 (7.5)	20 (7.6)
	6. 술을 먹고 토하거나 정신을 잃은 적이 있음.	29 (5.3)	14 (5.0)	15 (5.7)
	7. 밤늦게까지 이유 없이 배회한 적이 있음.	143 (26.3)	78 (27.9)	65 (24.7)
반사회성	8.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를 희롱한 적이 있음.	19 (3.5)	12 (4.3)	7 (2.7)
	9.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적이 있음.	10 (1.8)	7 (2.5)	3 (1.1)
	10. 성병이나 임신을 한 적이 있음.	9 (1.7)	6 (2.1)	3 (1.1)
	11. 마약 계통의 약물을 복용, 주사한 적이 있음.	8 (1.5)	4 (1.4)	4 (1.5)
	12. 폭력도구를 이용해서 싸워본 적이 있음.	17 (3.1)	11 (3.9)	6 (2.3)
	13. 남의 집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음.	41 (7.5)	18 (6.4)	23 (8.8)
모험성	14. 음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279 (51.3)	197 (70.1)	82 (31.2)
	15. 학원이나 학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음.	215 (39.5)	114 (40.6)	101 (38.4)
	16. 시험칠 때 컨닝을 한 적이 있음.	92 (16.9)	30 (10.7)	62 (23.6)
	17. 몰래 부모님의 돈을 훔친 적이 있음.	113 (20.8)	57 (20.3)	56 (21.3)
	18.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234 (43.0)	108 (38.4)	126 (47.9)

D. 대상자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점수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t-test와 ANOVA를 통한 차이검정 결과, 지역,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성적에 따라 위험행동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단,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 p값이 0.05와 매우 근소하고(F=2.93, p=.054) Tukey 다중비교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 '상'인 그룹과 '중'인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보다 오히려 위험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위험행동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위험행동점수가 높았고(t=2.30, p=.022)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위험행동이 적게 나타났다(t=-2.16, p=.034).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N=544)†

특 성	구 분	위험행동 평균 ± 표준편차	t or F	p	다중비교 (Tukey)
지 역	서울	5.82±7.84	−.67	.503	
	경기	6.24±7.01			
학 년	2학년	6.39±7.55	1.13	.260	
	3학년	5.68±7.25			
성 별	남	6.75±7.74	2.30	.022*	
	여	5.29±6.98			
부모와의 동거여부	예	5.63±6.78	−2.16	.034*	
	아니오	8.36±7.24			
사회경제적 수 준	a. 상	8.05±11.14	2.93	.054	a>b
	b. 중	5.67±6.72			
	c. 하	6.26±5.38			
학업성적	상	5.66±9.64	2.26	.106	
	중	5.46±6.05			
	하	6.94±7.56			

†무응답 제외, * p<.05

2. 가족기능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중학생의 사회환경적 특성 중 기능적, 역기능적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에 따른 위험행동 점수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t-test를 통한 차이검정 결과, 보다 기능적인 가족결속력을 보이는 집단(mean=5.62)이 그렇지 않은 집단(mean=6.34)에 비해 위험행동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적응력 측면에서도 보다 기능적인 가족적응력을 보이는 집단(mean=5.51)이 그렇지 않은 집단(mean=6.56)에 비해 위험행동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가족기능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N=544)†

특성	구 분	위험 행동 평균±표준편차	t	p
가족결속력	기능적 (분리, 연결)	5.62±6.54	-1.15	.252
	역기능적 (이탈, 밀착)	6.34±7.97		
가족적응력	기능적 (구조, 연결)	5.51±5.90	-1.67	.095
	역기능적 (경직, 혼란)	6.56±8.60		

†무응답 제외

3. 대상자의 위험행동과 제 요인 간의 상관관계

중학생의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10>과 같다. 대상자의 위험행동은 가족위험요인(r=.16, p=.000), 또래 위험행동(r=.49, p<.000), 유해환경요인(r=.34, p<.000)과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스트레스 대처능력(r=-.10, p=.022)과 가족기능(r=-.18, p<.000)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족위험요인이 높고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에 많이 노출될수록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클수록 위험행동 발현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중 문제지향적 대처(r=−.09, p=.042)와 정서완화적 대처(r=−.09, p=.041)가 유의한 관련요인이었으며 가족기능 중 가족결속력(r=−.19, p<.000)과 가족적응력(r=−.14, p=.001) 모두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행동의 하부요인인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과 연관성을 갖는 변인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반항성 위험행동의 유의한 관련요인은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 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반사회성 위험행동 관련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 가족결속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으로 총 위험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험성 위험행동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적극적 대처방식(문제지향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 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든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변인들과 연관성을 보였다.

<표 10> 위험행동과 제 요인 간의 상관관계

(N=544)†

	1.	**2.**	2-1	2-2	2-3	2-4	**3.**	**4.**	4-1	4-2	**5.**	**6.**	**7.**	7-1	7-2	7-3
자아존중감	1.00															
스트레스 대처능력	.07	1.00														
문제지향적	.29***	.77***	1.00													
정서완화적	-.09*	.74***	.41***	1.00												
소망적사고	-.13**	.81***	.52***	.50***	1.00											
사회적지지추구	.16***	.69***	.42***	.31***	.37***	1.00										
가족위험요인	-.23***	.06	-.03	.12**	.09*	-.00	1.00									
가족기능	.47***	.28***	.32***	.08	.16***	.30***	-.25***	1.00								
가족결속력	.49***	.28***	.32***	.05	.17***	.30***	-.28***	.95***	1.00							
가족적응력	.40***	.24***	.28***	.09*	.12**	.25***	-.18***	.93***	.78***	1.00						
또래 위험행동	-.07	.05	.03	.00	.07	.05	.13**	-.04	-.04	-.02	1.00					
유해환경요인	-.01	.06	.05	-.02	.10*	.04	.13**	-.01	.01	-.03	.56***	1.00				
위험행동	-.06	-.10*	-.09*	-.09*	-.08	-.04	.16***	-.18***	-.19***	-.14**	.49***	.34***	1.00			
반항성	-.03	-.03	-.02	-.05	-.03	.02	.10*	-.12**	-.13***	-.09*	.45***	.27***	.89***	1.00		
반사회성	.03	-.12**	-.07	-.10*	-.14***	-.03	.16***	-.12**	-.14***	-.07	.27***	.18***	.68***	.51***	1.00	
모험성	-.12**	-.12**	-.13**	-.08	-.06	-.10*	.15***	-.19***	-.20***	-.16***	.42***	.35***	.83***	.55***	.39***	1.00

1. 자아존중감 2. 스트레스 대처능력 2-1. 문제지향적 2-2. 정서지향적 2-3. 소망적사고 2-4. 사회적지지추구 3. 가족위험요인
4. 가족기능 4-1. 가족결속력 4-2.가족적응력 5. 또래 위험행동 6. 유해환경요인 7. 위험행동 7-1. 반항성 7-2. 반사회성
7-3. 모험성, †무응답 제외, * p<.05, ** p<.01, *** p<.001

E. 대상자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시행하였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 남녀 중학생은 각각의 위험행동 정도와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으므로 전체 중학생, 남녀 중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전체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1) 일반적 특성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대상자의 위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와의 동거여부(Yes, No), 사회경제적 수준(상, 중, 하), 학업성취도(상, 중, 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분석하였고, 3개 이상의 범주를 갖는 독립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사회경제적 수준(중)이 유의한 위험행동 영향요인이었고, 전체 설명력은 3.2%로 낮았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이 동거하고 있는 집단보다 2.48배 위험행동이 높았고(β=2.48, p=0.011)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인 집단이 '상'인 집단에 비해 위험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β=−2.72, p=0.008).

<표 11> 일반적 특성이 전체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544)†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β	t	p	VIF
위험행동	부모와의 동거 여부: No (vs Yes)		2.48	2.54*	.011	1.05
	사회경제적 수준: 중 (vs 상)		−2.72	−2.67**	.008	1.68
	사회경제적 수준: 하 (vs 상)	.032	−2.86	−1.91	.056	1.68
	학업성취도: 중 (vs 상)		.41	.45	.654	2.06
	학업성취도: 하 (vs 상)		1.51	1.53	.126	2.13

†무응답 제외, * p<.05, ** p<.01

2)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2>와 같다. 총 위험행동과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회귀모형에서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 여부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총 위험행동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가족위험요인,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으로 이루어진 가족기능은 인과적인 연관성은 없었다. 전체 설명력은 26.9%였으며 VIF가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반항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또래 위험행동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반사회성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가족위험요인, 또래 위험행동으로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험성 위험행동의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이었다. 이와 같이 총 위험행동과 하부요인에 속하는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각 영향요인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12>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전체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544)†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β	t	p	VIF
총 위험행동	자아존중감		−.00	−.05	.956	1.14
	스트레스 대처능력		−.10	−3.44***	.000	1.05
	가족위험요인		.35	2.46*	.014	1.10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269	−.30	−.51	.609	1.13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44	−.80	.423	1.02
	또래 위험행동		.71	9.30***	<.000	1.51
	유해환경요인		.13	1.98*	.048	1.50
반항성	자아존중감		.01	.58	.564	1.14
	스트레스 대처능력		−.02	−1.35	.178	1.05
	가족위험요인		.09	1.12	.265	1.10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207	−.31	−.97	.330	1.13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11	.38	.708	1.02
	또래 위험행동		.38	9.18***	<.000	1.51
	유해환경요인		.01	.33	.738	1.50
반사회성	자아존중감		.01	1.88	.060	1.14
	스트레스 대처능력		−.03	−3.51***	.000	1.05
	가족위험요인		.14	3.61***	.000	1.10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119	−.00	−.01	.993	1.13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29	−1.95	.052	1.02
	또래 위험행동		.09	4.64***	<.000	1.51
	유해환경요인		.01	.63	.527	1.50
모험성	자아존중감		−.02	−1.89	.059	1.14
	스트레스 대처능력		−.05	−3.86***	.000	1.05
	가족위험요인		.13	1.93	.054	1.10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234	.01	.03	.975	1.13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26	−1.05	.296	1.02
	또래 위험행동		.24	6.77***	<.000	1.51
	유해환경요인		.11	3.55***	.000	1.50

†무응답 제외, *p<.05, **p<.01, ***p<.001

2.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1) 일반적 특성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3>과 같다. 분석방법은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위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와의 동거여부(Yes, No), 사회경제적 수준(상, 중, 하), 학업성취도(상, 중, 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분석하고 3개 이상의 범주를 갖는 독립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없었다.

<표 13> 일반적 특성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276)†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β	t	p	VIF
위험행동	부모와의 동거 여부: No (vs Yes)		1.28	.86	.389	1.02
	사회경제적 수준: 중 (vs 상)		−1.72	−1.24	.215	1.59
	사회경제적 수준: 하 (vs 상)	.019	−1.84	−.90	.371	1.61
	학교 성적: 하 (vs 상)		1.47	1.20	.233	1.80
	학교 성적: 하 (vs 상)		2.43	1.76	.079	1.82

†무응답 제외, * p<.05, ** p<.01

2)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4>와 같다. 분석방법은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총 위험행동과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다중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모형적합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총 위험행동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만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학생 집단에 비교하여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위험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설명력은 30.9%로 전체 집단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VIF가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반항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또래 위험행동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반사회성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가족위험요인, 또래 위험행동이었다. 모험성 위험행동의 영향요인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으로 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학생 집단에서도 총 위험행동과 하부요인에 속하는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각 영향요인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14>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276)†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β	t	p	VIF
총 위험행동	자아존중감		−.02	−.42	.676	1.21
	스트레스 대처능력		−.05	−1.10	.270	1.06
	가족위험요인		.31	1.64	.102	1.10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309	−.73	−.85	.395	1.26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11	.15	.884	1.01
	또래 위험행동		.76	7.11***	<.000	1.54
	유해환경요인		.17	2.03*	.043	1.52
반항성	자아존중감		.02	1.07	.287	1.21
	스트레스 대처능력		.01	.42	.677	1.06
	가족위험요인		.07	.71	.478	1.10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248	−.70	−1.53	.128	1.26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39	.96	.340	1.01
	또래 위험행동		.41	3.88***	<.000	1.54
	유해환경요인		.02	.59	.731	1.52
반사회성	자아존중감		.01	1.13	.260	1.21
	스트레스 대처능력		−.02	−1.26	.208	1.06
	가족위험요인		.15	2.75**	.006	1.10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143	−.12	−.48	.635	1.26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40	−1.81	.071	1.01
	또래 위험행동		.12	3.90***	.000	1.54
	유해환경요인		.01	.51	.613	1.52
모험성	자아존중감		−.05	−2.92**	.004	1.21
	스트레스 대처능력		−.04	−2.15*	.033	1.06
	가족위험요인		.09	1.04	.299	1.10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286	.09	.23	.821	1.26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12	.35	.728	1.01
	또래 위험행동		.23	4.82***	<.000	1.54
	유해환경요인		.14	3.79***	.000	1.52

†무응답 제외, *p<.05, **p<.01, ***p<.001

3.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1) 일반적 특성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5>와 같다. 분석방법은 전체 및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사회경제적 수준(중, 하)이 유의한 위험행동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남자 중학생 집단과 차이를 보였고, 전체 설명력은 7.2%로 전체 및 남자 중학생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전체 중학생 집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이 동거하고 있는 집단보다 위험행동이 높았고(β=3.76, p=0.004)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 '하'인 집단이 '상'인 집단에 비해 위험행동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β=−3.96, p=0.009, β=−4.58, p=0.037).

<표 15> 일반적 특성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258)†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β	t	p	VIF
위험행동	부모와의 동거 여부: No (vs Yes)		3.76	2.92**	.004	1.10
	사회경제적 수준: 중 (vs 상)		−3.96	−2.62**	.009	1.81
	사회경제적 수준: 하 (vs 상)	.072	−4.58	−2.10*	.037	1.79
	학교 성적: 하 (vs 상)		−.66	−.49	.623	2.49
	학교 성적: 하 (vs 상)		.69	.48	.635	2.62

†무응답 제외, * p<.05, ** p<.01

2)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6>과 같다. 분석 방법은 전체 및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하다. 총 위험행동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또래 위험행동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위험요인은 p값이 .05에 근소한 수준에서 영향요인이었다(p=.066). 전체 설명력은 25.5%였으며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반항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또래 위험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반사회성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가족위험요인, 또래 위험행동이었으며, 모험성 위험행동의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또래 위험행동으로 나타났다. 전체 및 남자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총 위험행동과 하부요인에 속하는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각 영향요인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16>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258)†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β	t	p	VIF
총 위험행동	자아존중감		.01	.14	.885	1.12
	스트레스 대처능력		−.15	−3.66***	.000	1.06
	가족위험요인		.42	1.85	.066	1.13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255	−.01	−.01	.992	1.06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1.12	−1.42	.156	1.06
	또래 위험행동		.70	6.39***	<.000	1.58
	유해환경요인		−.02	−.21	.833	1.54
반항성	자아존중감		−.01	−.40	.687	1.12
	스트레스 대처능력		−.05	−2.15*	.032	1.06
	가족위험요인		.11	.89	.377	1.13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188	−.09	−.20	.841	1.06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28	−.65	.516	1.06
	또래 위험행동		.35	5.78***	<.000	1.58
	유해환경요인		−.03	−.43	.665	1.54
반사회성	자아존중감		.02	1.60	.111	1.12
	스트레스 대처능력		−.04	−3.85***	.000	1.06
	가족위험요인		.12	2.22*	.028	1.13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112	.14	.67	.503	1.06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18	−.92	.361	1.06
	또래 위험행동		.07	2.72**	.007	1.58
	유해환경요인		−.00	−.11	.916	1.54
모험성	자아존중감		−.00	−.07	.943	1.12
	스트레스 대처능력		−.06	−3.29**	.001	1.06
	가족위험요인		.18	1.75	.082	1.13
	가족결속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222	−.06	−.15	.884	1.06
	가족적응력: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66	−1.81	.072	1.06
	또래 위험행동		.28	5.50***	<.000	1.58
	유해환경요인		.01	.11	.912	1.54

†무응답 제외, *p<.05, **p<.01, ***p<.001

Ⅵ.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위험행동을 파악하고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중학생의 위험행동의 정도와 양상 및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 중학생의 위험행동

본 연구의 대상자인 544명의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는 0 ~ 54점의 가능 범위에서 평균 6.04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평균 6.75점, 여학생은 5.29점으로 남학생의 위험행동이 보다 높았다. 이는 위험행동을 일으키는 특수 집단이 아닌 일반 청소년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서 위험행동이 발생 빈도가 낮고 중학교 시기가 위험행동의 경험 정도에서 개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남현미, 옥선화, 2001) 일반적인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 중학생 집단의 위험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위험행동이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한편 중학생 시기가 대개 위험행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때이면서(김준호, 1993) 같은 위험행동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시기에 일탈과 모험의 의미가 크며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 및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은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행행동 중 모험 또는 스릴을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수용적인 모험성 위험행동이 가장 높았다. 위험행동별로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전체 집단에서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항목별 평균이 1.17로서 수치상으로는 모든 대상자가 적어도 1회 이상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행위별 경험률 빈도를 산출한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 31.2%(82명)가 음란동영상을 본 경험이 있는 반면 남학생은 70.1%(197명)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중학교 시기에 음란동영상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인터넷의 폭넓은 보급과 함께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점과 P2P 프로그램과 같이 여과 없이 쉽게 인터넷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를 구할 수 있는 점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에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학원이나 학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음’ 순으로 모험성 위험행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은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항목이, 여학생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에서 남녀 학생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험행위별 경험률에 관한 빈도수를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수는 전체 168명(30.9%)으로 나타났고 남녀 각각 86명(30.6%), 82명(31.2%)으로 나타났다. 흡연 경험률은 전체 103명(18.9%), 남학생 64명(22.8%), 여학생 39명(14.8%)으로 남학생의 흡연 경험률이 더 높았다. 이는 충남 소재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와 정혜경(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음주 경험률 46.0%, 흡연 경험률 17.6%에 비해 낮은 수치이면서 대구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신 등(2000)의 연구에서의 결과에 비해서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감신 등(200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 중학생의 21.9%, 여자 중학생의 22.0%가 음주를 경험한 적이 있고, 남자 중학생의 13.8%, 여자 중학생의 8.1%가 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학생 시기에는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모험성 행동이 많이 나타났고 위험행동의 정도와 양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선 중학교에서의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등의 학생지도와 일반 중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모험성 행동이 반항성 또는 반사회성 위험행동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행동으

로 발전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남녀 학생의 위험행동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고 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흡연, 음주에 관한 예방적 중재가 요구되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음란동영상을 접촉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특히, 중학생 시기에 음란동영상을 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강력하거나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성지식과 성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갖게 하기 쉬우므로 무조건 금기하기보다 접하게 되는 성매체를 올바로 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B.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학생의 위험행동의 차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 여부였고, 지역,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성취도에 따른 위험행동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하거나 상반된 결과이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위험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많은 지난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고(김수주, 2002; 오미경, 박성연, 1998; 윤혜미, 박병금, 2005; 이경님, 하연미, 2004; 현명선, 김경희, 김선아, 2004; Mears, Ploeger & Warr, 1998) 가족형태에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위험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재희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가족형태에 있어 가족불화 이외에 남편이나 부인의 직장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주택 문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생계 또는 편이성에 의해 분리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내 현황을 고려할 때(이호미, 김숙희, 홍상욱, 1995),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분리가족 내 자녀의 높은 위험행동 발현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띄며 이에 대한 관심과 조치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상태와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윤혜미, 박병금, 2005; 현명선, 김경희, 김선아, 2004; Hinshaw, 2000) 본 연구에서는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발달적 특성과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위험행동 관점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비행을 포함하는 문제행동 관점을 취하였고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 점에서 연구결과상의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겠다.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의 인과적 모형인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사회경제적 수준(중)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차이검정에서와 같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이 동거하고 있는 집단보다 2.48배 위험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리가족이 늘어나는 국내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여 분리가족 자녀에 대해 학교에서의 교육자,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전문가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겠다.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인 집단이 '상'인 집단보다 위험행동이 오히려 적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표집 및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문제이거나 중학생의 위험행동을 취하게 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위화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위험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보다 풍부하게 확보함으로써 보다 쉽게 위험행동을 통한 욕구충족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 집단에 따른 각 회귀분석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영향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사회경제적 수준(중, 하)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 분리가족 여부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겠다.

2.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임상적 조치에 의해 조절 가능한 변인들이다. 우선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해 범주형 변수로 변환한 가족기능에 따른 중학생의 위험행동의 차이 검정에 의하면,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각각 보다 기능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위험행동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스트레스 대처능력(문제지향적,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 모두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위험요인과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은 위험행동과 정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3가지 요인이 높을수록 위험행동

이 나타나는 정도가 높아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기능은 위험행동과 역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2가지 요인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낮아 위험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지향적, 정서완화적 대처와 가족기능 중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 모두 위험행동과 이와 같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행동의 하부요인인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과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반항성 위험행동과 유의한 관련요인은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 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이었고, 반사회성 위험행동은 스트레스 대처능력(정서완화적,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가족결속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 중학생 청소년에게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모험성 위험행동은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든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변인들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에 해당되는 문제지향적,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이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대부분의 기존 문헌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위험행동 특성에 따라, 즉 음주나 흡연과 같은 반항성 위험행동, 사회적 규범에 가장 위배되는 성희롱이나 불법 약물복용과 같은 반사회성 위험행동, 비교적 가벼운 사회적 규율을 어기는 것으로 일반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컨닝이나 거짓말과 같은 모험성 위험행동에 따라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고자 할 때 각각 초점을 둘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해준다.

몇 가지 변인들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 중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은 총 위험행동,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에서 모두 매우 유의한($p<.001$) 관련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또래의 위험행동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고(남현미, 옥선화, 2001; 이지민, Bell, 2004; 정윤주, Darling, 2003; Jessor, 1991) 유해환경에 접촉할수록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이기숙, 김수연, 1999)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또래 요인과 유해환경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변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이

나 행동과 집이나 학교 주변에서 쉽게 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용률보다는 그러한 환경에 의해 노출되는 것을 포함하여 사정하였다. 즉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또래와 함께 위험행동에 동참하거나 유해환경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에서 자아존중감은 모험성 위험행동 외에 총 위험행동, 반항성, 반사회성 위험행동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던 변인으로 대개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나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위험 및 문제행동과 연관성이 있거나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과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이 없거나 보호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어유경, 2005; Benda, 2001; Dryfoos, 1991; Sherina et al., 2008).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다수의 연구결과들과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위험행동과 문제행동의 개념의 차이나 다양한 측정도구의 사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과정이나 도구선정의 문제점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모험성 위험행동에 비해 반항성, 반사회성 위험행동은 자료의 특성상 변이도가 떨어지는 분포와 낮은 빈도수를 보임으로써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표 6, 7>. 한편 문제행동이 아닌 위험행동의 관점과 개념, 그에 따른 위험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실제적인 관련요인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 위험행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즐거움이나 또래와의 어울림, 스트레스 해소 등의 지각된 이득을 취하고 조절해가는 행동으로서 보다 대담하고 거침없는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래행동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나 쾌락 추구 및 스트레스 해소의 방안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행동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위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가족위험요인,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분석 결과에서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으로 이루어진 가족기능은 인과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의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역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반항성 위험행동 영향요인으로는 또래 위험행동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또래 위험행동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중학생 청소년이 음주나 흡연과 같은 반항성 위험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또래의 위험행동에의 노출과 그것에 대한 모방, 또래와의 어울림을 위한 목적이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귀모형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만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반항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또래 위험행동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은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위험행동 영향요인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 또래 위험행동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위험요인은 p값이 .05에 근소한 수준에서 영향요인이었다(p=.066). 또래 위험행동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이었으며 남학생과 달리 유해환경요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위험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또래 위험행동이 꾸준히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남학생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위험요인과 가족기능과 같은 가족적 특성과 상관없이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에 의해 절대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받는 반면, 여학생의 위험행동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수와 양혜원(2007)은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구조의 아동 및 청소년의 비교 연구에서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가족이 더 이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편 부정적 또래관

계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의 양상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위험 및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 구조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을 보다 고찰해보면, 오경자와 문경주(2006)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가족위험요인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부모자녀관계에 의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족위험요인에 의한 영향도 통계적 유의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나 여학생에 비해 가족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덜 받았다. 오미경과 박성연(1998)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화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학생은 사회화의 영향의 대부분을 친구요인이 차지하는 반면, 여학생은 부모와 위험친구가 거의 같은 크기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족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위험행동에 대해 각각 접근하고자 할 때, 남학생의 경우 또래집단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학생은 또래집단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을 고려한 보다 다각도의 접근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위험행동과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위험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상관 및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규명된 개인내적 요인으로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작용은 보다 다양한 대처방식을 통해 중학생 청소년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행동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다른 방법으로 발달적 욕구와 에너지를 승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는 선행연구에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던 변인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으나(어유경, 2005; 이지민, Bell, 2004) 다수의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누어 적극적 대처가 위험행동을 줄이거나 부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대처방식의 유형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대처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위험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 인과적인 영향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정서적 완화와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자아정체감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험적 방법을 시도하는 청소년, 특히 전기 청소년에게는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방식 역시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 중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사회환경적 특성 중 가족요인으로서 가족위험요인과 가족기능(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과 같이 가족의 구조적, 형태적, 기능적 특성이 위험행동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은 보인 것은 중학생의 위험행동이 가족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위험행동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특징인 또래 모방 현상과 왕성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행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또래 위험행동은 남녀 집단 모두, 총 위험행동과 위험행동의 3가지 형태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관련 및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는데, 이와 같이 또래 위험행동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이지민, Bell, 2004; 정윤주, Darling, 2003; Brook, Brook, Gordon, Whiteman & Cohen, 1990).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실무 및 국가정책 차원에서 가능한 활용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선 학교에서 일반 및 보건교사들에게는 분리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도, 가족위험요인 및 가족기능 파악, 취약한 가족요인을 갖는 가족과 학생에 대한 보살핌 강화 등의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관리전문가들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개선에 초점을 둔 예방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 증대,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유해환경요인의 단속과 건전한 환경조성의 노력을 함으로써 청소년 위험행동을 조절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스 대처능력 척도는 전체 내적신뢰도는 .82로 양호하

였으나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의 하부척도에서는 .46으로 매우 낮았다<표 2>. 이 도구는 김수주(2002)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도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주(2002)의 연구에서는 전체 .83, 정서완화적 대처 하부척도는 .65의 내적신뢰도를 보여, 본 도구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위험행동 측정도구는 Gullone 등(2001)의 위험행동척도를 한상철(2004)이 국내에서 검증하고 재구성한 것으로 그 개념적 기반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위험행동 개념과 가장 가까웠으나 한 도구 안에 비교적 가벼운 규율을 어기는 모험성 위험행동 항목에서 심각한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는 반사회성 위험행동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한 도구가 포괄하는 행동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충분한 변이도와 빈도수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표 6, 7>.

C.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인내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위험행동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규명되어 왔으나 매우 복잡하고 임상적 조치로 조절 가능한 변인들이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호현장에서 임상활용도가 높고 간명한 주요 영향요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비정상성과 이탈을 강조하는 문제행동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위험행동 개념으로 접근하여 정상적인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의가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지금까지 타 분야에 비해 간호학 분야에서는 청소년 위험행동 개념과 현상에 관한 고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수의 연구에서도 문제행동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간호학에서 인간의 발달적 특성과 생애과정에 대한 강조와 예방적 간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의 위험행동 개념이 보다 유용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 영역 내에서 청소년의 위험행동 개념을 개발하고 정립해나가며 학교보건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위험행동 현상에 대해 고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간호연구 측면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청소년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수 간호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생애 경험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인 관점을 취하는 간호연구에서 질병관리 뿐 아니라, 건강증진 측면은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달적 욕구 및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타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간호연구 측면에서 주요한 변인들을 선정하고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위험행동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간호실무 측면

다양한 간호실무 영역 중 학교보건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분야는 중 ·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주요 실무 분야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학생지도 및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전문가들에게서 청소년의 위험 및 문제행동은 중요한 관심영역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들 간호중재 제공자들에게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상활용도가 높은 위험행동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중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위험행동의 개념과 관점의 보급으로 인해 중재 제공자 뿐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위험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현상을 줄임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여 효과적으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인내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주요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각 2개교씩 총 4개교 남녀 중학교의 재학생으로 2, 3학년의 중학생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7월 16일에서 2008년 9월 9일까지로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거된 총 558부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를 제외한 총 54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인인 중학생의 위험행동은 Gullone 등(2001)의 위험행동 도구를 바탕으로 한상철(2004)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검증한 18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Coopersmith(1981)의 25문항 4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도구를 김수주(2002)가 재구성한 27문항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가족위험요인은 오경자와 문경주(2006)의 자녀구타, 부부간폭력,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부 갈등, 부모의 우울을 포함하는 5개 문항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가족기능은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20문항 5점 척도인 Olsen, Portner와 Lavee(1985)의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on Evaluation Scale-III)를 사용하였다. 또래 위험행동은 가까운 친구들의 행동을 묻는 것으로 위험행동목록과 예비조사 결과를 통한 18항목으로 측정하였고, 유해환경요인은 이기숙과 김수연(1999)이 개발한 도구 중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을 수정 · 보완한 19항목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인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는 0 ~ 54점의 범위로 평균 6.04점으로 모험성 위험행동이 반항성, 반사회성 위험행동에 비해 가장 높았다. 항목별로 높게 나타난 위험행동은 음란동영상 보기, 거짓말로 용돈 받기, 고의로 수업 빼먹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 간의 차이를 보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는 성별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위험행동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위험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3.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총 위험행동에 대하여 가족위험요인,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이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기능(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은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험성 위험행동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든 제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 위험행동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영향요인은 부모와의 동거여부, 사회경제적 수준이었고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관련변인 중 유의한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가족위험요인,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위험행동과 하부요인에 속하는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각 영향요인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위험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남녀 학생 간의 차이에서는 남자 중학생의 경우,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 만이 유의미한 위험행동 영향요인이었고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또래 위험행동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남학생은 또래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요인

이었고 여학생은 개인적 및 가족적 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또래 위험행동이었다.

본 연구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위험행동의 측정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무리가 있으나, 일반 중학생 집단의 위험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인내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영향요인과 영향요인 간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 시도로서 의의가 있으며, 위험행동에 작용하는 요인들 중 또래 위험행동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보다 긍정적인 위험행동 접근 방법이 유용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일반 중학생들의 위험행동이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 및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B. 제 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위험행동 개념 및 현상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현재 위험행동은 문제행동과 혼용되거나 개념적으로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합의를 위한 개념분석 연구와 위험행동 현상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 및 종단적 연구가 해당된다.

2. 위험행동 개념과 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3.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위험행동 영향요인들의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요인 연구를 제언한다.

3. 일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고려한 예방적 차원의 지도 방안 및 중재 개발을 제언한다. 특히, 가장 강력한 위험행동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또래 위험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또래 집단 프로그램이 효율적일 수 있겠다.

4. 또래의 위험행동이나 유해환경요인과 같이 단지 환경적 노출에 의한 영향력이 규명되었으므로 학교나 지역사회 실무 현장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보호와 바람직한 또래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감신, 이규희, 박기수, 김주열, 이영자, 강윤식, 김상우 (2000). 대구 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과 음주실태 및 그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4*(2), 233-254.

곽금주 (2003). 전자게임과 청소년 발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6-207.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007 청소년백서.

김경희, 정혜경 (2005). 여자 중학생의 흡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1*(1), 14-22.

김병준, 김윤희 (2004). 중고생의 인터넷 사용과 체력 · 학업성취의 관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1), 111-123.

김영아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와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7*(2), 203-212.

김수주 (2002). *중·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석, 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김은경 (2000).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요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연구, 7*, 127-138..

김준호 (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화, 송병국, 고운미, 이채식, 최창욱, 임형백 등 (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김현실 (2000). 폭력매체에 의한 비행행동의 구조모형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0*(1), 148-159.

김현실 (2003). 음주, 약물남용 및 공격충동이 청소년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2*(3), 349-357.

김형준, 이상준, 우정익, 조항석, 권혁중 (2002).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 및 중독 관련 요인 분석. *가정의학회지, 23*(3), 334-343.

김희수, 양혜원 (2007).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구조 비교. *청소년학연구, 14*(1), 155-188.

김희화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 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남경아, 정향인, 현명선, 노춘희 (2006). 여자중학생의 가족기능과 문제행동의 발생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신간호학회지, 15*(2), 161-169.

남현미, 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문화관광부 (2000). 2000 청소년백서.

민혜영 (1990). *Circumplex 모델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선, 이상균 (2001). 알코올 중독자 가정 청소년 자녀의 성인 아이 성향과 심리사회적 문제. *한국사회복지학, 45*(9), 118-144.

소재희 (2000).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소재희, 정연경, 장기영, 신영규, 이기형, 은백린, 박상희 (2001). 우리나라 청소년 위험행동의 예측인자. *소아과, 44*(12), 1364-1373.

심응철 (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어유경 (2005). *취약한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개이적 특성의 보호기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경자, 김은이, 도례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53-71.

오경자, 문경주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59-76.

오미경 (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09-123.

오미경, 박성연 (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11-227.

유영창 (1999).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윤자 (2000).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개방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혜미, 남영옥 (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127-153.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 -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28,* 133-164.

이경님, 하연미 (2004).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비행과 관련변인 간의 경로 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5), 127-143.

이기숙, 김수연 (1999).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인지수준과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6*(1), 49-71.

이명선 (2001).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과 유해환경과의 관련성 연구. *보건교육 · 건강증진학회지, 18*(2), 129-140.

이순철 (2004). 청소년의 문제행동 이해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1-10.

이우영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의사소통 및 가족규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진 (2003). *구조화된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분노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민 (2005).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이득 및 손실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7), 147-158.

이지민, Bell, N. (2004).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 및 또래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2*(12), 55-67.

이현아 (2000). *중학생의 문제행동 실태와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호미, 김숙희, 홍상욱 (1995). 가구주 분리가족 아내의 스트레스가 부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자원문제연구논집, 14*(1), 27-39.

이호진, 이명선 (2001). 청소년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이용과 건강위험 행태 분석. *보건교육 · 건강증진학회지, 18*(2), 129-140.

이휘곤, 황환식, 박훈기, 이정권 (2005). 청소년 흡연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26*, 138-144.

임미희 (2005). *부모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문제 행동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연심 (2004). *학교부적응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휘숙 (2005). 청소년 · 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 및 정체감 발달 수준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8*(3), 125-141.

정윤주, Darling, N. (2003). 부모가 정한 규칙에 대한 준수의무감과 또래의 문제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1*(2), 1-11.

조성연, 방은령 (2002).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 조사 연구: e-mail과 채팅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4*(2), 101-123.

조아미 (1999).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자아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1), 115-126.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2002년도 청소년 위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0). 학교폭력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 (2000). 학교부적응 실태조사 및 적응 프로그램 개발.

한상철 (1998). 청소년기의 위험행동: 교우관계 및 가족역할 변화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5*(3), 45-62.

한상철 (2003). 감각추구성향과 대처전략이 청소년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4), 1-26.

한상철 (2004). 중소도시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측요인 분석. *교육심리연구, 18*(3), 193-210.

한상철 (2006).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삶의 질: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5), 99-116.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청소년 문제행동 - 심리학적 접근 -*. 서울: 학지사.

현명선, 남경아, 공성숙 (2001). 청소년의 성적발달과 신체상, 문제행동 및 우울과의 관계 연구: 경기도 지역의 중학생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10*(4), 533-547.

현명선, 김경희, 김선아 (2004).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의 중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4*(2), 252-260.

황순길 등 (2001).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상담원, 181-220.

Arnett, J. (1990). Drunk driving sensation seeking, and egocentrism among adolescents. *Pers Individ Dif, 11,* 541-546.

Arnett, J. (1992).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 Rev, 12*, 339-373.

Arnett,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 Youth Adolesc, 27*(3), 301-320.

Benda, B. B. (2001). Conceptual model of assets and risk: Unlawful behavior among adolescents.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2*, 123-131.

Borum, R. (2000). Assessing violence risk among youth. *J Clin Psychol, 56*(10), 1263-1288.

Brook, J. S., Brook, D. W., Gordon, A. S., Whiteman, M., & Cohen, P. (1990). The psychosocial etiology of adolescent drug use: A family interactional approach. *Genet Soc Gen Psychol Monogr, 116*, 111-267.

Cloninger, C. R. (1987). Neurogenetic adaptive mechanism in alcoholism. *Science, 236*, 410-416.

Coopersmith, S. (1967). *The Adolesc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Coopersmith, S. (1981).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Dryfoos, J. (1991). *Adolescents in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rank, K. L., & Buehler, C. (2007). A family process model of marital hostility, parent depressive affect,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he roles of triangulation and parent warmth. *J Fam Psychol, 21*(4), 614-625.

Gullone, E., & Moore, S. (2000). Adolescent risk-taking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 Adolesc, 23*, 393-407.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D.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 Adolesc Res, 15*, 231-250.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 Bull, 112*, 64-105.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sual relationships and underlying mechanisms. *Psychol Bull, 111*(1), 127-155.

Horvath, P., & Zukerman, M. (1993). Sensation seeking, risk appraisal, and risky behavior. *Pers Individ Dif, 14*, 41-52.

Igra, V., & Irwin, C. E. (1996). Theories of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 In R. J. DiClemene, W. B. Hansen, & L. E. Ponton (ed.), *Handbook of adolescent health risk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Irwin, C. E., & Millstein, S. G. (1986). Biopsychosocial correlates of risk-taking behaviors during adolescence. *J Adolesc Health Care, 7*, 82-96.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 Adolesc Health, 12*, 597-605.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on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 Psychol, 18*, 255-271.

Lazarus, R., & Folkman, S. (ed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e, J. M., & Bell, N. J.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autonomy configurations: Lingkage with substance use and youth competencies. *J Adolesc, 26*, 347-361.

Levitt, M. Z., & Selman, R. L. (1996). *The personal meaning of risk behavior: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riendship and fighting in early adolescenc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rshall, M. P., & Chassin, L. (2000).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and discipline. *Appl Dev Sci, 4*, 80-88.

Mears, D. P., Ploeger, M., & Warr, M. (1998).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delinquency: Peer influence and moral evaluations of behavior. *J Res Crime Delinquen, 35*(3), 251-266.

Menaghan, E. G., Kowaleski-Jones, L., & Mott, F. L. (1997). The intergenerational costs of parental social stressors: Academic and social difficulties in early adolescence for children of young mothers. *J Health Soc Behav, 38*(1), 72-86.

Merrill, J. C., Kelber, D, C., Scwartz, M., Liu, H., & Lewis, S. R. (1999). Cigarettes, alcohol, marijuana, other risk behaviors and American youth. *Drug Alcohol Depend, 56*, 205-212.

Moore, S., & Gullone, E. (1996). Predicting adolescent risk behavior using a personalized cost-benefit analysis. *J Youth Adolesc, 25*, 343-359.

Olsen, D. H., Portnet, J., & Lavee, Y. (1985). *FACES-III: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evaluation scale-III).*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Olson, D. H., Russel, C.,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theoretical update. *Fam Process, 22*, 69-83.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Negl, 28*, 547-563.

Rodgers, K. B. (1999). Parenting processes related to sexual risk-taking behaviors of adolescent males and females. *J Marriage Fam, 61*, 99-109.

Selman, R. L., Schultz, L. H., Nakkula, M., Barr, D., Watts, C., & Richmond, J. (1992). Friendship and fighting: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study of risk and prevention of violence. *Dev Psychopathol, 4*, 529-558.

Sherina, M. S., Rampal, L., Loh, J. W., Chan, C. L., Teh, P. C., & Tan, P. O. (2008). Self-esteem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Klang District, Selangor. *Med J Malaysia, 63*(1), 26-30.

Simon, R. L., Johnson, C., Beaman, J., Conger, R. D., & Whitbek, L. B. (1996). Parents and peer group as mediators of the effect of community structure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m J Community Psychol, 24*, 145-171.

Small, S. A., Silverberg, S. B., & Kern, D. (1993). Adolescent's perceptions of costs and benefits of engaging in health-compromising behaviors. *J Youth Adolesc, 22*(1), 73-87.

Veselska, Z., Geckova, A. M., Orosova, O., Gajdosova, B., van Dijk, J. P., & Reijneveld, S. A. (2008). Self-esteem and resilience: The connection with risky behavior among adolescents. *Addict Behav,* in press.

Whitaker, D. J., & Miller, K. S. (2000). Parent-adolescent discussions about sex and condoms: impact on peer influences of sexual risk behavior. *J Adolesc Res, 15*(2), 251-273.

Zu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 and biological base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age University Press.

<부록> 설문지

조사일시	2008. . .
설문번호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분석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청소년의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행동의 관련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이며, 이를 토대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외에는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현례 드림.
핸펀: 010-****-****
이멜: dalim****@*****.net

다음은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잘 맞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들다.				
3.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싶다.				
4. 나는 내 마음을 결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5.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6. 나는 집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잘 낸다.				
7. 나는 무언가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8.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9.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10.우리 가족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11.나는 아주 쉽게 포기해 버리는 성격이다.				
12.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13.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되어 있다.				
14.친구들은 대체로 내 의견을 따른다.				
15.나는 내 자신이 신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통하다: 칭찬해줄만큼 대견하고 싹싹하다.)				
16.나는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17.나는 자주 내가 하는 일이 짜증스럽다.				
18.나의 외모는 다른 사람만큼 잘 생기지 않았다.				
19.나는 하고 싶은 말은 서슴지 않고 말한다.				
20.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21.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다.				
22.우리 가족들은 나를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				
23.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주 실망을 한다.				
24.나는 꽤 행복한 편이다.				
25.나는 나의 학교생활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음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현재 혹은 지난 6개월간 <u>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u>.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느끼는 바를 누군가에게 말한다.				
2. 어떤 대책을 시도해보기 전에,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본다.				
3.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었다고, 스스로 깨닫는다.				
4. 그 일에 대해 좀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5.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6.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7. 다음에는 일이 좀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8. 다른 사람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9.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10.그 일을 잊기 위해 다른 일을 한다.				
11.최후의 수단을 쓰기보다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다.				
12.내가 할 말이나 생각을 속으로 되풀이한다.				
13.전문적인 도움을 청한다.				
14.조급히 굴거나 육감에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5.그것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16.자신이 처한 지금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한다.				
17.잘 안될거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무엇인가를 해보기는 한다.				
18.내 감정을 아무에게나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9.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20.문제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다.				
21.긍지를 가지고 꿋꿋이 버텨나간다.				
22.기분전환이 될 수 있을만한 말을 자신에게 한다.				
23.최악의 경우를 각오한다.				
24.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25.내 입장을 지키면서 바라는 바를 위해 싸운다.				
26.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27.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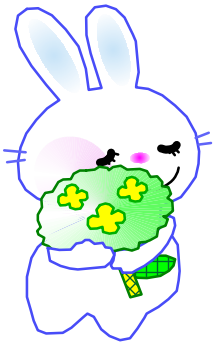
다음은 평소 가족들과의 생활에서 느끼는 점들에 관한 질문으로, 현재 **여러분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거의	때때로	자주	항상
1. 우리 가족은 서로 도움을 청한다.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3.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에 대해 인정해준다.					
4. 우리 가족의 자녀들은 집안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5.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끼리만 일(여행, 외식)을 한다.					
6. 우리 가족은 상황에 따라 식구 모두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7. 우리 가족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구성원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8.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본다.					
9.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0.우리 집에서 잘못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벌칙에 대해 토론한다.					
11.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12.우리 가족은 자녀들도 의사결정을 한다.					
13.우리 가족은 함께 할 활동(명절, 제사, 생일)이 있을 때 모두 참여한다.					
14.우리 집에서는 정해놓은 규칙이 변하기도 한다.					
15.우리 가족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취미, 오락)을 쉽게 생각해낸다.					
16.우리 가족은 집안일에 대해 교대로 책임을 맡는다.					
17.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할 때 식구들과 상의한다.					
18.우리 가족 중에서는 누가 가장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19.우리 집에서는 가족이 함께 지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우리 집에서는 누가 집안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다음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위험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표해주세요.**

문항	없음	1회	2-4회	그이상
1. (지난 1년 동안) 음주한 적이 있음.				
2. 이성친구와 키스한 적이 있음.				
3. 흡연한 적이 있음.				
4. 음주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뒷자리에 동승한 적이 있음.				
5. 무단 외박을 한 적이 있음.				
6. 술을 먹고 토하거나 정신을 잃은 적이 있음.				
7. 밤늦게까지 이유 없이 배회한(돌아다닌) 적이 있음.				
8.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를 희롱한 적이 있음.				
9.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적이 있음.				
10.성병이나 임신을 한 적이 있음.				
11.마약 계통의 약물을 복용, 주사한 적이 있음.				
12.폭력도구를 이용해서 싸워본 적이 있음.				
13.남의 집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음.				
14.음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15.학원이나 학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음.				
16.시험칠 때 컨닝을 한 적이 있음.				
17.몰래 부모님의 돈을 훔친 적이 있음.				
18.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일반적 사항〉



1. 나의 성별과 나이는? □남 □여 / 만 (　　)살

2. 우리집 경제 상태는? □상 □중 □하

3. 나의 학교성적은? □상 □중 □하

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은?
□엄마/아빠 □아빠만 □엄마만 □기타 _____

5. 다음 중 **우리 가족에 해당되는 것**은? ("√"표시)

항 목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자녀 구타 (본인 또는 형제/자매)				
② 부부간 폭력				
③ 부모의 지나친 음주				
④ 부부 갈등				
⑤ 부모의 우울				

6. 다음 중 **주변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이나 행동**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체크)
□수업빼먹기 □컨닝 □잦은 거짓말 □훔치기(물건, 돈) □싸움(폭력적인) □음주 □음주 후 정신잃음 □배회 (이유없이 돌아다님) □오토바이타기 □무단외박 □흡연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마약 복용 □키스 □성병이나 임신 □성희롱 □음란사진/잡지 □음란동영상

7. 다음 중 우리 **집이나 학교 주변에서 쉽게 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체크)
□전자오락실 □PC방 □만화가게 □비디오대여점 □당구장 □커피숍/카페 □호프/소주방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소 □유흥가 □TV/케이블 성인방송(19+) □성인잡지/사진 □성인만화 □성인/음란동영상 □인터넷음란사이트 □음란 PC게임 □술 □담배

*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Risk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Hyun Ly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risk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the second and third year students of 4 middle schools in the Seoul and Gyeng-gi area.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the period for data collection was from July 16, to September 9, 2008. Of the 588 questionnaires collected, 14 were excluded because data was unclear or omitted, leaving a total of 544 questionnaires for analysis.

The research tool used in this study to measure risk behavior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as dependent variable was the tool by Han (2004) developed in Korea based the ARQ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by Gullone et al. (2001). The influencing factors included personal factors measured using the Self Esteem Inventory (Coopersmith, 1981), and Stress Coping Scale (Lazarus and Folkman, 1984). Socio-environmental factors included family risk factors (Oh & Moon, 2006),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Evaluation Scale-III (FACES-III), and peer risk behaviors questioning the behaviors of close

friends and harmful environment factors using a modification of the tool developed by Lee and Kim (1999).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AS 9.1 program were used to analyzed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core for risk behavior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tended to be low with a mean of 6.04 (range of 0~54). Thrill-seeking behavior was highest. The items checked as high were 'watching lewd moving pictures', 'getting pocket money using lies', 'losing lesson intentionally' and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were showed.

2. In the test for difference of risk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variables were gender, and living with parents or not. Risk behavior was higher for boys and for students not living with parents.

3.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isk behavior and personal, socio-environmental factors, family risk factors, peer risk behaviors, and harmful environmen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otal risk behavior, whil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family functioning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were negatively correlated.

4. On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risk behavior were living with parents or not, socio-economic status, stress coping, risk family factors, peer risk behaviors, and harmful environments.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showed that peer risk behaviors and harmful environment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risk behavior in the boys and stress coping and peer risk behaviors were significant for girls. Overall,

peer risk behaviors and harmful environments were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boys but more various factors influenced risk behavior in girl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factors influencing total risk behavior and rebellious, antisocial, thrill-seeking behavior as subcategories. The variable which had the highest effect on risk behavior over all of the other factors identified was peer risk behaviors.

In conclusion, a risk behavior approach that considers developmental needs is useful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 of effective guidance and interventions considering factors influencing risk behavior as identified in this study is recommended.

Key words: middle school student, risk behavior, influencing factor